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낯선 신비
- 북해도(北海道)의 날들

일본 하면 흔히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의 도시가 우선 떠오르는데,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바로 홋카이도(북해도)로, 삿포로 맥주의 본고장이다. 홋카이도는 흔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겨울과 함께 7, 8월의 한여름도 극성수기일 정도로 계절마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 그만큼 매력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다. 삿포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예전 '방송과기술 2016년 12월호'에 실렸던 소개를 통해서였는데, 이국적인 사진들로 꽤 흥미로웠다. 그렇게 알게 된 삿포로를 지난 6월에 드디어 다녀올 수 있었다.

홋카이도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면적의 80% 면적에 500만의 인구와 연이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약간은 건조하면서 서늘한 기후로 물이 맑아 유제품과 주류 등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다는 것과 어느 지역이든 야경이 유명하고, 고유음식과 해산물 등 먹을거리 역시 풍족하다는 것이다.

삿포로의 중심부인 오도리 공원, 각종 축제와 집회가 열리고 주변으로 백화점과 상점들이 즐비하다

스스키노역의 메인거리, 홋카이도 태생의 유명한 NIKKA 위스키 광고가 보인다

TV탑의 3층 전망대 내외부

▲ 오도리 공원을 포함해 삿포로 전역을 볼 수 있다

◀ 삿포로 TV탑, 4면으로 시간을 알려주며, 삿포로하면 바로 떠오 르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소란 마쓰리 축제, 삿포로 중심가와 주변부 곳곳에서 춤 경연이 이어졌다. 올해에는 국내에서도 2팀이 참가했다고 한다.

유채화 느낌의 나카지마 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로 녹색이 가득하여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TV탑에서 강을 하나 넘으면 나오는 니조시장, 카이센동(海鮮丼, 해산물 덮밥)을 맛볼 수 있다

삿포로 그리고 오도리 공원

인천에서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기차나 버스를 통해 다시 삿포로 시내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겠지만 첫날은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 시내의 중심지인 오도리 공원 주변을 돌아보았다. 삿포로는 계획도시여서 각 구역이 블록으로 나뉘어 있고, 장소를 찾기가 쉬운 편으로 오도리 공원을 중심으로 삿포로역과 홋카이도 대학, TV탑, 시계탑, 구 도청, 니조시장 등 볼거리와 한 정거장 거리인 스스키노역 주변으로 각종 먹거리와 숙소,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시내를 둘러보니 어느덧 저녁이 다 되어 TV탑을 방문했다. 야경을 보기 위해선 삿포로역의 JR 타워(지상 38층, 높이 173m)와 오도리 공원의 TV탑(높이 147.2m), 남쪽의 모이와 산(해발고도 531m)을 꼽을 수 있는데 가까운 TV탑을 선택한 것이다. 입장료는 단돈 720엔. 전망대에 오르니 각종 기념품과 TV탑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가득했다. 360도로 삿포로 시내를 볼 수 있었고, 오도리 공원도 한눈에 들어왔다.

시내를 걷다 보니, 차량 통제 중에 함성이 들린다. 바로 삿포로의 6월 축제인 소란 마쓰리가 진행 중이었다. 소란 마쓰리는 삿포로의 여름을 알리는 축제로 전국에서 270여 개의 팀, 3만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의미 있고, 인기 있는 축제다.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도리 공원과 그 주변에서 여러 팀의 춤과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삿포로 시내에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스스키노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나카지마 공원이 있어 잠시 다녀왔는데, 호수를 한 바퀴도니, 마치 전혀 다른 관광지에 온 듯한 느낌으로, 모네의 수련처럼 그림 같은 풍경이 이어졌다. 일본을 관광하기 위해 도시의 지도를 보면 공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시민의 휴식처이면서, 누구나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공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점은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였다.

오타루 지역

오타루는 삿포로 인근 도시로 4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를 방문한다면 삿포로와 함께 필수코스로 여겨진다. 1872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해 홋카이도 개척의 가교 역할을 한 오타루 시는 유명한 오르골당과 함께 작은 운하로 유명하며 유리 공예와 각종 특산품과 먹을거리로 가득한 지역이다. 오타루역 옆에는 삼각시장이 있어 해산물덮밥을 먹어볼 수 있고, 북쪽

미나미오타루역은 작은 시골역 같았다

르타오 본점 꼭대기에서 본 오르골당 사거리, 미니어처 느낌으로 왼쪽 건물이 유명한 오르골당이다

오타루의 상점에서는 귀여운 유리공예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오르골당 내부, 목조 건물로 은은한 느낌을 자아낸다

오타루의 메인거리라 할 수 있는 사카이마치 거리

사카이마치 거리의 키타이치 홀, 아늑한 분위기로 2~4시 정시에 피아노가 연주되었다

오타루 운하, 주변으로 식당과 상점이 들어서 있고, 작아서 아기자기한 느낌이었다

비에이 지역의 풍경, 평원에 나무들이 돋보이는 유럽 같은 느낌을 풍겼다

으로 운하가 위치하며, 오르골당까지 사카이마치 거리라 불리며 다양한 상점들의 즐비했다. 필자는 오타루역과 한 정거장 거리인 미나미오타루역에서 내려 오타루 지역을 탐방했다. 2만여 점의 오르골을 볼 수 있다는 오르골당은 3층으로 이루어진 1호점과 맞은편에 2호점이 있어 오타루 관광의 중심에 있었다. 이곳은 유리 제품을 만드는 공방이 곳곳에 있어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많았으며 기타이치 가라스가 유명하다. 이밖에도 유리를 이용한 작은 기념품과 함께 르타오, 롯카테이, 바움쿠헨와 같은 제과점들에서는 시식을 할 수 있어 여러 과자 등 관련 제품을 살펴보는 요긴한 시간이 되었다.

비에이와 후라노의 전원마을을 오가는 노로코 테마열차, 좌석 방향이 창가쪽으로 되어있다

비에이, 후라노 지역

7, 8월 라벤더와 드넓은 들판으로 유명한 이곳은 삿포로 시내에서도 2~3시간의 거리와 각 명소가 떨어져 있어 필자의 스타일인 도보 여행이 불가능한 곳이라 1일 버스투어를 신청해 둘러보았다.

비에이 지역은 일본 CF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진 곳으로, 패치워크로드와 파노라마로드로 불리는 마일드세븐의 언덕, 켄과 메리의 나무, 세븐스타나무, 오야코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들판에 이색적인 나무들로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낮은 동산에 여러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유명하지만 방문 당시는 이제 막 싹이 트고 있었다. 비에이역 주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유럽풍의 건물들이 즐비했으며, 건물 상단부에는 1910, 1947 등의 숫자를 볼 수 있었다. 이 숫자들은 바로 해당 건물이 지어진

원래는 농부들이 그늘에서 쉴 목적으로 심어졌다는 크리스마스 트리

몽환적인 분위기의 청의 호수

연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지역을 보다 보면 가정집의 지붕이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에 몇 미터 단위로 오는 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새삼 환경에 적응해가는 일본인의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후라노 지역은 라벤더가 유명한 도미타 농장 주변으로 꽃밭과 아이스크림 등을 맛볼 수 있었고, 숲속 요정마을이라는 의미인 닝구르테라스는 예전 일본 드라마 세트로 지어져 지금은 각각 공방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투어 중간에 들른 이른바 청의 호수는 인근 온천에서 내려오는 온천수로 인한 파스텔 톤의 물이 인상적인 곳으로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 볼거리가 없지만 여름에는 현재와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청의 호수 근처에는 흰수염폭포가 역시 유명한데, 도카치 온천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의 모양이 수염과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다. 이곳은 반대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운 신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작은 상점들로 꾸며진 닝구르테라스

흰수염폭포

홋카이도의 먹을거리

홋카이도는 일본의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 칭기스칸, 카레에 각종 채소를 더한 수프카레, 싱싱한 해산물을 밥 위에 올린 해산물덮밥, 그리고, 미소, 간장, 소금라면 등을 기본으로 털게 요리와 초밥 등 끝없이 정렬할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칭기스칸은 양고기를 구워 야채와

함께 간장소스에 찍어 먹는 식인데, 양고기도 그렇지만 특히 소스에 인상을 받았다. 달짝지근한 간장에 다진마늘과 깨, 고춧가루를 넣어 소스를 만드는데 먹어보니 양고기는 물론, 어떤 고기에도 어울리는 듯하였다. 수프카레는 약간 생소한 느낌이지만 약간은 걸쭉한 카레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 그 풍미를 더한다. 밥과 함께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었다. 해산물덮밥은 성게알인 우니를 비롯해, 연어알과 게살 등을 올린 덮밥으로 홋카이도에서 그나마 싱싱한 해산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라면 역시 여러 맛집이 있었고, 특이하게 밤 11시 부근에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일본라면만의 진하고, 쫄깃한 면발의 다양한 라면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밖에 게 요리도 유명하여 카니본가 등 코스 요리로 유명한 식당들이 있지만 가격이 비싼 점이 흠이라 할 수 있다.

홋카이도는 유제품도 유명하여 이를 이용하여 만든 싱싱한 우유와 치즈, 커피와 초콜릿 등도 꼭 맛보아야 할 음식으로 추천하며, 또한 맥주 역시 삿포로를 명칭으로 하는 만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방문한 삿포로 맥주박물관에는 삿포로 맥주의 탄생과 함께 지난 역사를 알 수 있게 전시하였고, 600엔 이하로 삿포로 초기의 맥주와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클래식 맥주 등을 맛볼 수 있었다. 한정판의 나라 일본인만큼 삿포로 맥주는 여름과 겨울에 한정판 맥주를 판매하는데, 클래식 맥주를 기본으로 같이 맛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홋카이도 지역을 둘러보면서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 상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이미지화와 마케팅 등을 참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점들 덕분에 무엇무엇을 사가야 하고, 먹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배워야할 것 같다.

다시 방문할 북해도

삿포로를 여행하며 팁이라면, 편의점으로 유명한 일본답게 홋카이도 지역은 로손, 패밀리마트와 더불어 세이코 편의점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편의점은 간단한 음식을 살 때만 들르고, 어느 정도 규모있는 슈퍼마켓에 꼭 들르길 추천한다. 다양한 상품들과 저렴한 가격, 판촉세일 등으로 여행의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신치토세 공항은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면세품이나 지역 상품을 살 경우에는 국내선 쪽에서 사는 것이 좋다. 선물하기 좋은 유명한 제과제품은 물론, 해산물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출국심사를 마친 후 들어간 국제선 쪽은 작은 규모로 2~3개의 매장에 한정된 제품만 팔고 있었다.

삿포로 부근을 잠시 다녀왔는데, 보통 홋카이도 지역은 렌터카로 여행을 많이 한다. 워낙 넓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여러 곳을 둘러보기 위해선 필수이기도 하다. 홋카이도는 이밖에도 세계 3대 야경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하코다테를 비롯해 노보리베쓰, 왓카나이, 오비히로, 구시로 등 각기 다른 환경과 볼거리로 가득한 곳이다. 렌터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기회가 된다면 다음 여행은 역시나 삿포로가 될 듯싶다.

삿포로 맥주박물관에서 600엔에 접할 수 있는 생맥주로 왼쪽부터 블랙라벨, 클래식, 카이타쿠시(초창기 방식의 맥주)

양고기를 구워먹는 칭기스칸

니조시장에서 카이센동으로 가볍게 한끼

후라노 팜노미타의 라벤더 소프트콘